대천사 갈망하는 구원 에녹

메뚜기를 연상시키는 모습의 230CM 신장과 메뚜기의 날개와 스카프에서 컨셉을 따온 3쌍의 촉수

상아색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의복을 가진 초월 짐승이자 엘림들을 깨우치고 이끄는 오르페노크들의 왕

그러나 그 실세는 헤브라이의 평범한 남자였다

유사 B애니멀화

에녹은 쌍둥이동생 이시야와 함깨 메타트론과 산달폰의 가호를 받아 천사와 비슷한 생명체로 변했고 이때부터 신앙심을 품은 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신에게 봉인 육체가 현계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후 완벽한 육체를 되찾기 위해 영혼상태로 당시 하루오에게 빙의하여 그와 기억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아카츠키호 사건 당시의 파장으로 후대천사들의 힘이 강해져 인간의 오르페노크화역시 증가하게 된다.

사도왕의 영의: 히브리 대제사장의 의복을 연상시키는 갑주 생전에 에녹이 입은 예복을 본따서 만든 영의이다

완전태상태에서만 생성되며 빛의 마력으로 형성되어 그의 위력을 증가시킨다.

구원은 끈임없으리: 에녹은 자질이 있거나 자신 또는 신을 신봉하는 자들을 신뢰하며 오르페노크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믿은 채 영생또는 완전한 힘을 내려준다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 으로서 구원받을 뿐이다

실제로 에녹과 엘리야는 인간의 진리 및 오르페노크의 힘을 남용하는 현대인류 대부분에게 실망해 있었다.

구원의 가호: 오르페노크의 가호의 원형이 된 세포이자 물질 동시에 에녹의 능력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접촉한 대상은 재화하며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르페노크의 경우는 일정확률로 죽지 않은 채 완벽하게 각성을 완료하는 것도 가능 하지만 소체가 된 인간이 아닌 처음으로 오르페노크화된 첫번째 인간의 인격만이 남게 된다.

무한한 힘의 재화: 인간을 단 한번에 재로 만들어 버리는 공명의 마황력

완전태: 숙주인 하루오를 완전히 흡수하여 커진 본래의 형태

키가 290cm로 증가하며 채색이 밝아졌다

신체부분도 좀더 곤충의 형태가 두드러져 본래 성인으로서 에녹의 모습을 되찾았다.

에녹서: 보통은 에녹이 천사들이나 타천사의 종류에 대해 적은 성경외경 및 신학 최고의 걸작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제왕의 벨트 시스템의 기초가 된 마력 저장소이기도 하다

이를 숨기기위해 후대 예언자들이 에녹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다 천사와 타천사종류의 기록을 덧씌운것